리메이크 음악의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 2010~2020년대 리메이크 곡 중심으로 –

황병희,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ghkdqudgml1@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remade music by period and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uture Remake Music

Byeong-hee Hwang,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리메이크란 어떤 창작물을 그것과 같은 장르, 혹은 다른 형태로 다시 바꿔 만드는 것을 말한다. 원곡의 음악적 특징과 스타일은 편곡과 가수의 역량 등에 의해 재해석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대별로 원곡과 리메이크곡 사이의 다양한 편곡 차이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음악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향후 리메이크 음악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와 2020년대를 중심으로 원곡과 리메이크곡 분석을 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시대별 상황, 리메이크의 형태 분석을 통해 기존의 가요를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친숙한 가수가 기존 가요를 리메이크 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당시의 감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옛 음악과 현대음악의 세대를 넘는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서 론

리메이크 음악 시장이 범람하고 있다. 각종 음원 차트의 상위권에는 아이돌 음악이 아니면 리메이크 음악이다. 다수의 팬덤이 있는 아이돌 음악은 그럴 수 있다지만 어째서 리메이크 음악이 이토록 사랑받는 것일까? 새로운 음악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리메이크는 말 그대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1].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음악을 제작하는 기술이 꾸준히 발전해왔고 그에 따른 다양한 편곡 시도가 가능해지고, 또한 가수 역시 시대에 따라 그 형태 및 음악적 표현방식, 구성 등이 달라졌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대와 2020년대 리메이크 음악을 분석함으로써 원곡과의 악기 구성, 코러스, 보컬, 장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 리메이크 음악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본 론

2.1. 2010년대 리메이크 음악

2010년대는 음악 산업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이 쏟아져 나왔고,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부터 리메이크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히트송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단순히 차트의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2010년대에 발매된 리메이크 음악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다.

2.1.1. All For You - 정은지 서인국

쿨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댄스 그룹으로, 'All for You'는 그들의 히트곡 중 하나다. 이 곡은 경쾌한 댄스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사랑받았으며, 가사에서는 연인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정은지와 서인국이 부른 'All for You'는 2012년 방송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OST로 사용되었는데, 드라마가 1990년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All for You'는 드라마의 주요 장면에서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곡은 감미로운 발라드로, 사랑과 우정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림 1] 쿨 'All fo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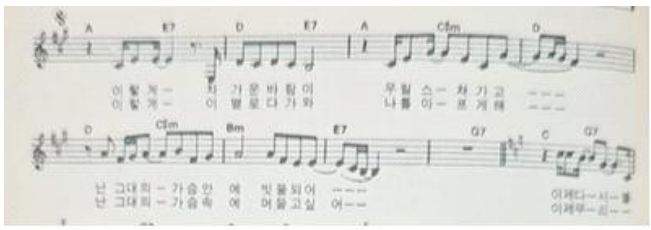
[그림 2] 서인국 정은지 'All for you'

쿨의 버전은 댄스곡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하는 반면, 정은지·서인국의 버전은 발라드로 감성적인 느낌이 강조되었고, 가사의 내용 또한 쿨의 곡은 연인에 대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정은지·서인국의 곡은 사랑과 우정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었다.

이처럼 'All for you' 는 발표 시기와 아티스트에 따라 음악적 스타일과 표현하는 감정이 달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곡으로 탄생되었다.

2.1.2. 잊지 말기로 해 - 성시경 권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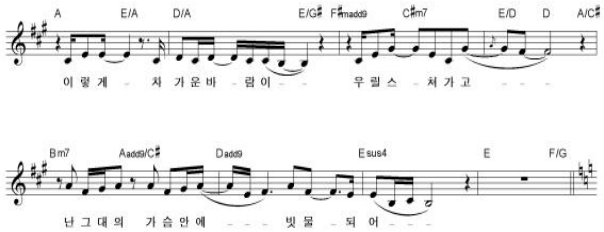
'잊지 말기로 해' 의 원곡은 1989년 장필순의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장필순이 작사하고 김현철이 작곡 및 편곡을 맡았다. 가사에서는 이별 후에도 서로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다짐과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3] 장필순 김현철 '잊지 말기로 해' 7 ~ 14마디

기본적인 I–IV–V–I 진행을 따르며, 브리지 부분에서는 ii–V–I 진행을 사용하여 곡의 전개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7화음과 9화음을 활용하여 곡에 풍부한 색채를 더하고, 감정의 깊이를 표현했다.

2014년 발표된 성시경·권진아의 '잊지 말기로 해' 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OST로 사용되었으며, 원곡의 감성을 현대적인 편곡과 두 아티스트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4] 성시경 권진아 '잊지 말기로 해' 9 ~ 16마디

I–V–vi–IV 진행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현대 대중음악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고, sus4 화음과 같은 열린 화음을 활용하여, 곡에 여운을 남기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장필순과 김현철의 원곡은 1980년대의 감성을 담은 발라드로, 따뜻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특징인 반면, 성시경과 권진아의 버전은 현대적인 편곡과 두 아티스트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재해석되어, 원곡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준다.

2.1.3 2010년대 리메이크 음악의 특징

2010년대는 리메이크 음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 중 하나인데, 곡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감성의 재구성이 핵심 키워드이다. 원곡보다 더 감성적이고 섬세한 표현이 많아지고, 댄스곡이 발라드로 리메이크 되면서 감정의 몰입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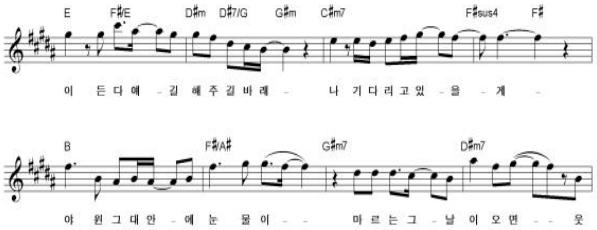
원곡의 악기 구성을 바꾸는 편곡도 유행하였고, 보컬 중심으로 곡을 해석하기도 했다. 젠더 스와프 리메이크를 통해 가사의 의미나 분위기를 새롭게 설정하기도 하고, 솔로곡을 듀엣곡으로 편곡하는 등 다양한 리메이크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다.

2.2. 2020년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리메이크 음악 시장은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90년대와 2000년대 노래방 문화를 즐기던 세대가 음악 시장의 주요 소비층이 되었다. 아이돌 음악과 트로트가 양분하고 있던 현재의 음악 시장에서 다시금 발라드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2020년대 리메이크 음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2.2.1 심 – D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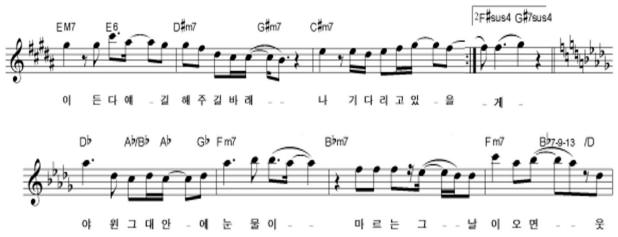
'심' 은 2002년 얀의 2집 수록곡으로 사랑에 대한 고뇌나 갈등을 표현한 락발라드 곡이다.



[그림 5] 얀 '심' 59 ~ 66마디

다양한 세븐스 코드와 서스포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감성적이고 풍부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밴드 사운드를 강조한 편곡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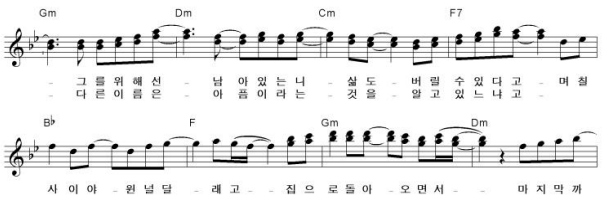
반면 2023년 발매된 DK의 '심' 은 원곡의 밴드 사운드 보다 스트링이 강조되어 있는데 원곡보다 서정적인 분위기의 사운드를 이끌어내어 감정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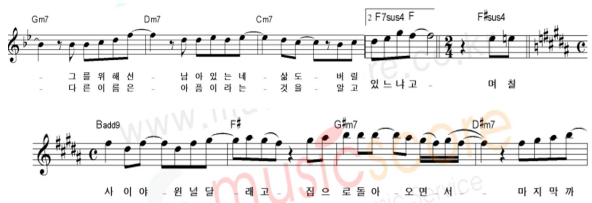
[그림 6] 얀 '심' 59 ~ 66마디

[그림 5]와 [그림 6]은 두 버전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원곡은 전조 없이 곡의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반면 리메이크 버전은 Chorus 부분에서 전조를 하면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조금 더 자극적인 보컬을 원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2.2.2 가질 수 없는 너 - #안녕



[그림 7]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그림 8] #안녕 '가질 수 없는 너'

95년에 발매된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와 2023년 발매된 #안녕의 '가질 수 없는 너' 의 일부분이다. 앞서 비교했던 '심'처럼 분위기의 고조를 위한 장치로 전조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리메이크를 거치면서 코드의 진행이 세븐스 코드와 서스포 코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좀 더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고 있다.

2.2.3. 2020년대 리메이크 음악의 특징

2020년대 리메이크 음악은 원곡의 감성에 현대적인 편곡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레트로 붐이 일어나면서 90년대 2000년대 히트곡들이 재해석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소리다. 그 시대를 겪었던 30~40대에게는 추억을, 새로 접하는 10~20대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또한 많은 리메이크 곡들이 OST로 활용되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편곡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결론

리메이크는 곡 자체를 단순히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편곡을 통해 창조적인 음악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의 곡을 통해 당시의 감성, 음악을 포함한 문화와 스타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까지도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리메이크 곡들이 탄생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곡을 현대에 리메이크하고 이를 대중이 소비한다는 것은, 1990년대에도 2020년대에도 공존하는 우리의 감성, 문화와 스타일, 사회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대중음악이 언제든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옛 음악과 현대음악의 세대를 넘는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이인혜(Lee In-Hye), "리메이크 영화 <만추>의 비교분석 연구: 1981년과 2010년 작 <만추>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 19호 / 2014년 / 75-113 page.